

『 전북의 지붕, 변화하는 고장 진안 』

지리교육과 3학년 이인우

1.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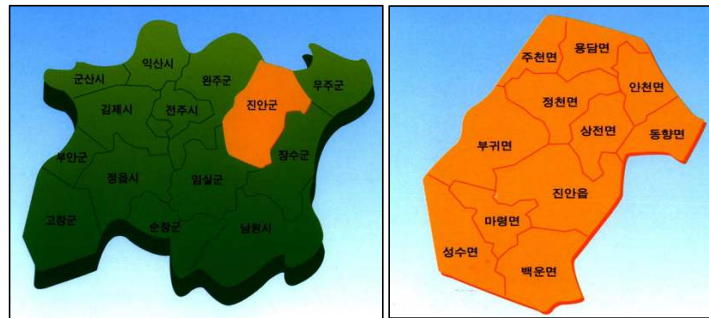
1) 수리적 위치

단	극점			연장거리
	지명	동경	북위	
동 단	동향면 학선리	127° 37' 80"	35° 70' 81"	동서거리 22.7km
서 단	성수면 중길리	127° 16' 30"	35° 58' 66"	
남 단	백운면 신암리	127° 27' 48"	35° 49' 57"	남북거리 45.7km
북 단	주천면 용덕리	127° 26' 10"	35° 99' 15"	

출처: 진안군청

2) 관계적 위치

전북의 동부 산악권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군은 동쪽으로 무주, 장수, 남쪽으로 장수, 임실, 서쪽으로 완주, 북쪽으로 충남 금산이 인접하여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형성한 진안고원과 소백산맥이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 진안군의 위치 〉

출처 : 진안군 통계연보

삼남지방이 남을 남서로 관통하며, 덕유산 등의 커다란 산을 토해내고 남으로 지리산으로 이어지고, 충북 영동의 민주지산에서 소백산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노령의 주봉인 진안의 운장산을 이루고 진안의 부귀산을 거쳐 전주의 모악산, 정읍의 내장산으로 이어진다.

이 양대 산맥이 폭 10~20km의 서남방향으로 아주 가까이 평행하며 고원을 이루는 양상이고, 해발 200~400m의 산간 구릉지로서 약 82.4%의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진안고원에서 북류하는 금강과 남류하는 섬진강으로 수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1979년 5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안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0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2. 기후 및 인구

기후는 대륙의 동부에 위치하여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하여 기온차가 심하다. 또 남부 내륙형기후구에 속하나, 해발고도가 높은 마령면·용담면 등지는 고랭지 기후에 속하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겨울에 눈이 많아서 교통이 자주 끊긴다. 적설량과 우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연평균기온 12~13℃ 내외, 연강수량 1,200~1,300mm로 다우지역이다. 일조시간은 1,634~2,153시간의 분포를 나타내며, 타지방보다 벚꽃 개화일이 5~6일쯤 늦으며, 마이산은 전국에서 가장 벚꽃이 늦게 피기로 유명하다.

진안군의 인구는 2005년 기준 23,915명이며((1980년 인구 대비 약 35%), 평균연령은 47.4세,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9.2%이다. 진안군의 경제활동인구의 약 73%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진안군 산업별 인구 현황 〉

출처 : 진안군청

3. 진안 으뜸 마을 가꾸기 사업

전라북도 진안군은 농촌마을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새롭고 독자적인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비롯하여, 마을 간사제도 도입, 마을조사단 운영지원 등 귀농지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고 있으며 11개 읍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모델마을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친환경작목 중심으로 특화발전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농촌, 농업 개발 방식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모든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서해안 일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념은 ‘더디지만, 함께 더불어 발전한다.’이다.

기존의 농촌 개발 사업이 주민 요구와 단절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한계를 가졌다는 점을 상기 할 때, 이 사업은 철저하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인 셈이다.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사업 초기에 주민들에게 마을 가꾸기 사업이 생소해서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과가 하나 둘씩 눈에 보이면서 마을 대표들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른바 마을 가꾸기 사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인식이 생기고, 진안군에서 의존적 사고에 젖은 주민들의 의식을 주체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민 교육을 실시하면서, 진안군은 어느덧 농촌마을의 발전 모델로 타지자체의 벤치마킹지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이뤄진 데 비해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박사 출신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었고, 교육부터 계획, 설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둔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미 농촌의 발전 모델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 읽을거리 >

진안군 마을축제 31일 개막...마을별 체험프로그램 풍성

제2회 전북 진안군 마을축제가 7월 31일 개막해 열흘간 개최된다.

'고(GO!)향(鄕),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이란 주제로 이날부터 열리는 마을축제에서는 반경 5km 이내에서 수신이 가능한 미니 FM방송인 공동체라디오도 진행되며, 올해 마을축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중략)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마을별로 지역특색에 맞게 구성된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내달 2일부터 4일까지는 능길권역 8개 마을이 결합된 축제로 귀농귀촌 테마 중심으로 '한여름밤 수박축제'와 '숲속마을 새울터(전원마을) 준공식' 등 다양한 농촌체험행사가 개최되는 제2회 능길권역 귀농귀촌 체험축제가 흥을 돋우게 된다.

이어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4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에는 일본 큐수 아야정 단체장 등이 참석해 한일 마을 만들기 교류 심포지움과 4개 학습군 19개분과가 참여하는 뿌리학습교류회, 전국우수사례 초청 발표회 등이 열린다.

이밖에 시골학교 동창회와 진안고원 옛길 걷기, 청소년전통예술캠프, 희귀잡지 전시회, 한여름 밤 음악회 등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도 마을축제의 한 부분을 장식한다.

2009. 08. 04일자 연합뉴스 사회면

〈 참고문헌 〉

- 진안군 / 2007 / 진안군 통계연보 2007
- 미래한국재단 / 2008 /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 만들기 사업 : 풀뿌리 마을 기반 강화를 통한 농촌 발전

〈 참고사이트 〉

- 진안군청 <http://www.jinan.jeonbuk.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마이산 타포니

★ 우리는 왜 이곳에 왔을까?

마이산에서는 타포니 지형의 형성과정과 원인을 알아보며 선명한 그 타포니의 모양을 관찰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특수한 기후조건에 따른 지형 형성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수려한 경관을 음미해 보자.

★ 교육과정의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을까?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

- 한국지리
 - 2단원 지형환경과 생태계
 - ① 산지 지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형의 전체 틀을 파악한다.
 - ④ 다양한 지형이 생태 및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 3단원 변화하는 기후환경
 - ② 기후 변화의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어디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 울산광역시 타포니
- 제주도 타포니
- 강원도 양양 타포니